

정찬주 작가 '아소까대왕' 3권 출간  
 석가모니 가르침 설파 아소까 삶·정신 담아  
 95년부터 '간디기념관' 등 인도 유적지 답사



# “30년 걸려 쓴 소설, 선물 같아”

정찬주 작가는 지난 1995년 2월 인도를 방문했다. 첫 방문 당시 작가는 한달 간 일정으로 부처님 유적지를 답사했다. 델리의 간디기념관을 비롯해 국립박물관, 힌두교 최대 서지 바라나시 등도 둘러봤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이었다.



정찬주 작가

그리고 열추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작가의 '장작의 방'에선 소설의 씨앗이 발아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앞서 언급한 장소 외에도 '부처님 유적지에서 아소까석주와 아소까탑을 발견'하며 희열을 느꼈다. 그것들은 오롯이 부처님의 흔적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보성 출신 정찬주 작가가 아소까대왕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을 들고 독자 곁으로 돌아왔다. 전 3권으로 발간된 '아소까대왕' (불광출판사)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설파했던 아소까의 삶과 사유, 정신을 다룬다.

정 작가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아마도 점심 나절에는 산책을 할 거라는 이편의 예상이 들어맞았다. 바로 연결된 전화가 너머로 창작의 고투에서 잠시 물러나 일상의 여유를 누리는 모습이 목소리를 통해 전해왔다.

화순 쌍봉사 인근에 이불제(耳佛齋)라는 집필실을 열고 창작에만 열정을 쏟아온 그였다. 고찰 쌍봉사 인근의 이불제는 '바람에 귀를 씻어 진리를 이루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차 또한 몇 차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던 터라, 계단산 자락의 소담한 산세와 인근의 그림 같은 풍경이 자연스레 그려졌다. 오늘처럼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운 시절에는 잠시 그곳에 들러 귀를 씻고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좋을 터였다.

"이번 소설을 끝내기까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소설가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속보의 시대에 소설을 쓴다고 30년의 시간을 쏟았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한

일이라 후회는 없어요." 작가는 1995년 여행 당시 아소까왕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 "서적이나 자료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후로 2년에 한번씩 인도에 가곤했다"는 말에서 저간의 공력이 읽혀졌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길이었지만 점차 아소까왕 유적지 등을 답사하며 '소설로 써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오랜 발효 과정이 있었다. 작가가 말한 대로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티브는 소설의 열개와 구조로 발전해갔다.

"그동안 적잖은 소설을 펴내고 산문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항상 아소까왕 소설에 대한 구상이 떠나질 않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써야 할 그런 작품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아소까왕 관련 소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선물처럼 찾아왔다. 작가는 스승이었던 법정스님의 '발원이 간절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다.

"제작년 1월 소설을 연재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현대불교신문'에 매주 1회씩 2년에 걸쳐 연재하며 아소까왕의 진면목을 펼쳐 보일 수 있었죠."

작가에 따르면 아소까왕은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융성하게 했다. 외교 사신단을 통해서도 전 세계로 불교를 전했다. 특히 여는 군주와 달리 "무력이나 칼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담마'에 근거해 모든 생명체를 보호했던 왕"으로 기록돼 있다.

아소까왕은 인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였던 마우리아왕조(BC317-BC180)의 3대왕이었다. 그는 선왕들의 숙원인 인도 남동부 정벌에 나선다.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돌아온 건 "최강의 군주라는 자긍심보다도 많은 전장을 물들인 붉은 피를 보며 전쟁의 무참함"이었다.

"그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불교에 귀의한 것이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아소까왕을 우리나라 세종대왕에 비유했다. 그만큼 인도인들에게 아소까왕은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럽의 총기사고 등 국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아소까왕의 리더십은 오늘의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준다. "생명중중과 평화공존의 사상으로 집약되는 대왕의 통치철학을 세계의 지도자들이 깊이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작가의 말이 묵직하게 들리는 이유다.

소설을 발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작가는 또 붓집을 꾸렸다. 24일부터 터키로 또 문화답사를 떠난다. 쌍봉사 증현 스님과 흥기삼 전 동국대 총장 등 26명으로 답사단이 구성됐다. "지진으로 비명횡사한 많은 망자들을 위해 극락왕생을 빌어 주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이따에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 광주-대구시립합창단 '카르미나 부라나' 공연 30일 전남대 민주마루...광주시향 박미자·엄경목 등 협연

인간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합창 음악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합창곡 '카르미나 부라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칼 오르프의 작품 '카르미나 부라나'는 합창 음악의 진수로 꼽히는 작품이다.

특히 작품의 첫 부분과 마지막에 흐르는 '오! 운명의 여신여(O! Fortuna)'는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곡으로 드라마와 CF, 영화 등에 수없이 삽입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를 공연한다.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동맹의 의미를 담아 대구시립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웅장한 음악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이라 이브로 들려준다.

쟁쟁한 협연자도 눈에 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소프라노 박미자를 비롯해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하고 다양한 무대에 선 테너 강동명, 뉴욕시티오페라단 상주 단원을 역임한 바리톤 엄경목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193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됐으며 칼 오르프가 불인 부제 '독창자, 합창, 관현악과 미술적인 그림들과 함께하는



소프라노 박미자

테너 강동명

세속 노래'에서 알 수 있듯, 극장 공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어렵게도 이번 광주시립합창단 공연에서는 무대 여건상 무용수의 등장 등 연출적 요소는 배제됐다.

시인 슈벨러의 시집에서 발췌한 24편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은 '오 운명의 여신여'라는 첫 곡으로 시작해 '봄의 노래', '목장에서', '선술집에서', '사랑의 딸' 등을 통해 사랑과 환희, 방황과 갈망, 자연에 대한 묘사를 이어간다.

'카르미나(Carmina)'는 라틴어로 매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노래'를 말한다. 독일에서 '카르미나'라는 용어는 중세시대의 문학 작품에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승들이 하루 일과를 끝낸 후 엄격한 생활의 스트레스를 노래하며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했던 내용을 담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기억해야 할...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들

광주극장, 다큐·극영화 상영  
 '차별' '장기자랑' '호르다' ...

제일 조선인 차별, 세월호, 감정노동과 갑질. 광주극장은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상영한다.

23일 개봉하는 '차별'은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된 조선 고등학교 5개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후의 소송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2017년 7월 오사카조선고등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 1심 판결부터 2019년 4월 규슈조선고등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까지 2년간의 소송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아시아발견대상상을 수상했다.

4월9일 오후 1시에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불퇴직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김지운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4월 5일 관객을 만나는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일곱 명의 엄마들이 열렬하게 연극을 시작하며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아이들을 향한 기억을 이어가는 휴먼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

극단 노란리본'의 세 번째 작품이자 수학여행을 앞두고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연극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육광문화상 수상작이다.

'호르다' (3월30일 개봉)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안의 버팀목이었던 엄마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아빠를 외면할 수 없어 고민하는 취업준비생 '진영'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나만 없는 집'으로 주목받아온 김현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드라마 '나쁜 형사'에 출연한 이설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 '불멸의 여자' (4월5일 개봉)는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로 강요당하는 화장품 판매사와 갑질 손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파격 잔혹극이다. 동명의 연극이 원작으로 최종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실제로 출연한 연극배우들과 함께 배우 안내상이 출연한다.

현재 상영중인 '이니세린의 밴시'는 예고 없이 찾아온 인생 친구의 절교 선언, 끝까지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남자와 우정을 끝내고 싶어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코미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등 전 세계 영화제에서 32개의 각본상을 수상했다.



'어떤 영웅'은 빛을 갖지 않아 수감 중인 주인공 라힘이 선행으로 영웅 대접을 받지만 점차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이란 출신의 거장 아슈카르 파라디 감독의 신작이다. 전 세계 영화제 13개 부문 수상 및 38개 부문 노미네이트 된 작품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국립광주박물관, 학술출판 사업 4개 기관 선정 고흥분청문화박물관·강진고려청자박물관·은암미술관·의재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이 지역 소재 공·사립 및 대학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술출판 공모에 모두 4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기관과 주제는 각각 고흥분청문화박물관(탐방분청, 고흥에서 꽃 피우다), 강진고려청자박물관(전라병영성 600년), 은암미술관(빛고을 경양방죽·물길의 역사와 문화), 의재미술관(그림의 본으로 삶의 본이되다II)이다.

이번 학술출판 사업은 지역 역사가 품고 있는 다양한 학술자료들을 발굴해 양질의 도록 및 연구서를 발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추진돼 5개 협력관이 선정됐으며, 광주박물관과 협력해 도록 5권(사진)을 공동 발간한 바 있다.

이애령 광주박물관장은 "학술출판 협력사업으로 발간된 도록과 연구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학술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반인, 연구자를 위한 양질의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 기업·기관 모집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과 기업, 기관, 마을이 협업을 통해 예술인에게 활동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술인의 역량을 높이고 예술 영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이 올해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마을)을 모집한다. 선발된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인의 매칭을 통해 14개 팀이 6개월간 협업을 진행한다. 리더예술인에네는 월 140만원, 참여예술인에게는 월 120만원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공모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기업·기관(마을) 2개소와 예술인 1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기관(마을) 14개소, 예술인 70명(리더에

술인 14명, 참여예술인 56명)을 선정한다.

기업·기관(마을)의 신청자격은 광주광역시 소재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해야 하며 ESG 경영실천을 시도하고자 하는 곳이면 가능하다. 리더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광주광역시 거주 예술인으로 한정한다.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과 광주예술로사업 '리더예술인'으로 3년이상 참여한 예술인은 제한된다)

참여예술인(56명)은 4월 초 공고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온라인(artbodum@naver.com)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57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